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하려면

인센티브 늘리고 규제 풀어야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주장

법인세 면제 기간 연장·인프라 확충도 절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부정기 간행물 '리전인포'에 발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상 혜택, 경영 활동 지원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규모는 59건 64억달러로 이 가운데 42건 41억달러가 투자실현됐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14건 23억달러 가운데 무려 80%가 항만·물류시설 기업에 국한돼 당초 기대했던 첨단기업 유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내 경제자유구역내에 사업추진 시 43개 법률 104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와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 법정처리기한이 270일이지만 복잡한 행정규제와 인·허가절차로 인해 광양만권 화양지구의 처리기한은 무려 671일이 소요됐다.

또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국내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별다른 혜택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이 최장 15년에 달하지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3년에 불과해 세제상 이점이 부족한 점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등 인프라와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의료병원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점도 외국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다른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업종을 확대하고 감면 세목을 추가하는 한편, 선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설정 취지를 살려 외국인의 투자, 기업활동, 사회활동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나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성농업인의 미래를 열자"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 주관 '제3회 전남 여성농업인 대회'가 27일 장흥군 실내체육관에서 '앞장서는 나의 발걸음! 여성농업인의 미래를 연다'를 주제로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성과 미흡 공공기관장 해임"

매년 노사관계·예산절감 등 경영평가

공공기관 108곳 대상

앞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 평가, 미흡할 경우 해임 조치가 단행되고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또 이면합의 근절, 불법쟁의에 대한 합법적 대처 등을 통해 기관장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노사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도 평가대상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부터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계약경영제가 도입돼 매년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2008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 주무부처 및 108개 공공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기타 공공기관 17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계약경영제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되도록 매년 기관장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해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기관장 경영계약에서는 3년 단위의 경영목표만을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가 추가됐다.

평가지침에 따르면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계획·집행·산출 등 3단계로 나눠서 실시된다.

계획단계(25점)는 주요 현안과제와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등을, 집행단계(25점)는 노사관계 등 집행과정의 합리성, 예산절감 노력 등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산출단계(50점)에서는 주요 현안과제의 이행성과가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적정목표치 대비 실적을 계량평가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연합뉴스

위장탈북 女간첩 검거

군 장교 등과 접촉 … 군 기밀·탈북자 정보 北에 빼돌려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의 직파 여간첩이 군 부대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 기밀을 빼내 북측에 유출하다 붙잡혔다. 〈관련기사 5면〉

수원지검·경기도경·기무사·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3~4명과 탈북자 단체 간부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직파간첩 원정화(34.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원정화에게 탈북자 명단 등 보안 정보를 넘겨준 육군 모 부대 황모(27) 대위와 원정화에게 간첩 공작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북측에 제공한 남파 간첩 김모(63)씨도 붙잡아 구속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인 원정화는 1998년 중국으로 나가 지린성 등지에서 무역업을 하며 탈북자와 남한 사업가 등에 대한 납치에 관여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이다 2001년 10월 조선족을 가장해 남한 남성과 결혼하고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원정화는 입국 직후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자수했으며 이후 군 부대를 돌며 반공 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황 대위 등 경기 북부지역 부대 정훈장교 3~4명에게 이성 교제를 미끼로 접근해 군사 기밀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무등산 자연경관 관광자원화 계획

시의회 조례안 추진

광주시의회가 무등산의 생태계와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송재선(51·서구1)·이철원(50·북구 5) 의원 등 시의원 5명은 27일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종합계획을 수립,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골자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계획을 심의토록 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원구역을 포함한 무등산 일대가 적정성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시교육위 후반기 의장 전원범씨

부의장에 박기훈씨 당선

전원범(63·사진) 광주시교육위원이 제5대 광주시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박기훈(66) 위원이 당선됐다. 임기는 9월1일부터 2년이다. 〈관련기사 3면〉

27일 오전 열린 광주시교육위원회 제169회 임시회에서 전 위원은 전체 7표의 과반수인 4표를 얻어 3표를 얻는데 그친 문동주 위원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에 올랐다. 박 위원도 4표를 얻어 서재의(3표) 위원을 꺾었다. 이날 선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닌, 입후보를 원하는 위원이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위원은 정견발표에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교육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고창 출신인 전 위원은 광주교대 국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광주시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동시작가이기도 하다.

순천 출신 박 위원은 광주시내 중·고교에서 교직을 역임했으며 문흥중 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공무원 응시 연령 상한 내년부터 없앤다

행정·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시는 32세, 외시는 29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각각 제한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외시,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각각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2030년까지 원전 10기 건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 설비·연구 111조 투입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지금의 4.6배인 11%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설비와 연구개발에 111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새로 지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36%에서 59%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4%에서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중 태양광은 지금보다 44배, 풍력은 37배, 바이오는 19배, 지열은 51배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풍력과 조력, 바이오 등 국내 여건이 좋은 분야는 2012년부터 에너지사업자(발전소 등)에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일반주택 100만호를 조성하는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

•직통 : (062)227-9600
•FAX : (062)227-9500

정정공고

본지 2008년 5월 19일에 게재된 광주지방법원 공고중 사건번호 2008카공208 자기앞수표 금액 : 각금500,000(2매)를 금액 : 각금1,000,000원(2매)으로 수정하여 바로 잡습니다.

주유소매매

• 화순읍내 국도변 25m×10m코너
• 대지 1,186㎡ 건물 471㎡(케노피포함 2층)
• 탱크 180D/M 4기, 주유기 5기
• 매가 11억5천만원(융자4억1천포함)조정가
☎011-413-6051(주·야)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 수완지구 상업용지 | 건축상담

첨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접 1200평 180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접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특가상담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종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말!말!말! 말을잘해야 성공한다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쉽,설득력 향상과정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2008년 2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❶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하는데 있음.
❷ 모집인원 : 각반 50명 선착순
대상 : 주부, 직장인, 일반 남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각 종행사 사회진행 및 리더자로 활동할 분. 발표력이나 말을 잘 하고 싶은 분
❸ 강의요일 및 시간
- 주간 (매주 화, 금요일) 14:00~16:00
- 야간 (매주 금요일) 19:00~21:00
❹ 교육기간
2008년 9월 16일~12월 29일
❺ 교육과정
대중앞에서 공포증 해소 및 여러사람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행사 사회진행 및 브리핑과 대중연설 기법,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향상 교육, 이론40% 실기 60% 교육훈련, 이미지를 높이는 말의 기술화법, 리더쉽 설득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훈련, 실습을 통한 듣기좋은 목소리 연출법, 이외에 스피치의 모든 고품질 대화법, 각종 원고작성 요령 및 연설문 낭독요령
❻ 원서교부 및 등록시간
· 등록기간 2008년 8월 4일(월)~9월 5일(금)
· 등록시간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심관 4층)
❼ 등록방법 (수강료 : 150,000원)
· 직접방문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22-158135 (예금주 : 광주대 평생교육원)
❽ 수료 후 특전
- 광주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 각 기업, 학원 단체 각급학교 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강사추천
- 기별수강생 정기 친목모임
❾ 담당교수 : 한 상 택
- 한국웅변연설인 중앙회 회장
- 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대통령상 세계한국어 웅변대회 대회본부장
- 사단법인 한국웅변인 협회 광주 본부 회장
- 각종 전국 웅변,스피치,연설,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 기초광역의원 및 기초광역단체장, 국회의원 후보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지도(30년)
-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저서 - 말하기 교본
- 스피치 웅변 연설 리더쉽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eb2.gwangju.ac.kr/~sce
Tel. 062)670-2167, 2168
Fax.062)670-2475/H·P 010-5692-9998

합병공고

(주)준영개발(이하"갑"이라 한다)과 신우전력(주)(이하"을"이라 한다) 는 2008년 08월 28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 에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은 해산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 및 사원은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8년 8월 28일
"갑" 주식회사 준영개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90-2
대표이사 박 영 준
"을" 신우전력 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90-2
대표이사 양 시 훈

합병으로 인한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회사 자원메디칼이 주식회사 대림쏠라를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대림쏠라는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 주주 및 채권자께서는 소유 주식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합병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다음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합병비율 : (주)대림쏠라 1주당 (주)자원메디칼 69.2704615주를 교부함.
2.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 : 2008.08.29 ~ 2008.09.29
(2)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 신청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628번지

2008년 8월 28일
주식회사 대림쏠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628번지
대표이사 박 준 오(직인생략)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2008년 8월 22일 개최된 양사의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에서 하기 양 회사는 합병을 하고 주식회사 보성전기(이하"갑")는 유한회사 선광전력(이하"을")의 권리, 의무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갑" (주)보성전기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1127-7
대표이사 김 동 민
"을" (유)선광전력
전북 익산시 마동 335-9
대표이사 이 염 섭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진흥엘엔에스 주식회사(이하"갑")와 현대전력 주식회사(이하"을")은 2008년 8월 27일 각각 주주총회의결로 "갑"은 그 재산의 일부(영업)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2항의 결의결차를 밟아 상법 제590조 제1항의 출자제한 이외의 제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계회사 주주께서도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8일
(갑) 진흥엘엔에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32-29 우리벨처타운 부805호
대표이사 심 일 섭
(을) 현대전력 주식회사
전남 순천시 조례동 1398-6
대표이사 신 승 호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진성전력 (이하"갑")과 태일전기 주식회사 (이하"을")은 2008년 8월 27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을)은 그 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갑)이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되 양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08년 8월 28일
"갑" 주식회사 진성전력
전라남도 고흥군 무원면 신송리 67-5
대표이사 정 안 순
"을" 태일전기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07-5 3층 303호
대표이사 이 용 철